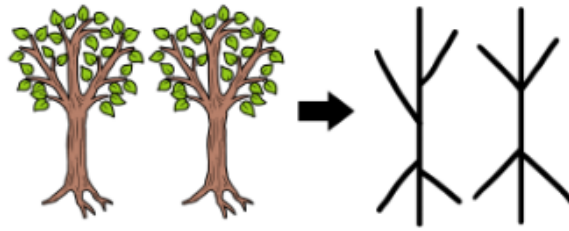


7
-
11

회의문자①



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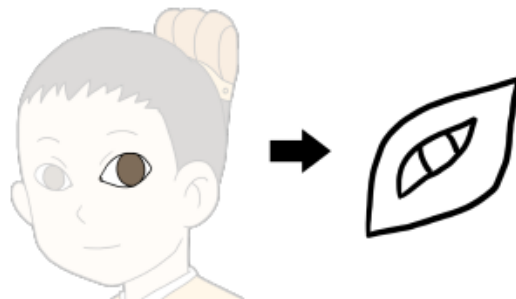
수풀 림

사물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는 글자를 빨리 만들 수 있었지만 다양한 뜻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고안된 방법이 기존에 만들어진 상형문자를 서로 결합해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회의문자(會意文字)이다. 그중에서도 서로 같은 상형문자를 결합하는 것을 동체회의(同體會意)라고 한다. 같은 글자끼리 결합했기 때문에 기존의 의미가 더해지는 효과를 주게 된다. '수풀'을 뜻하는 林자가 그러하다. 林자는 木(나무 목)자를 겹쳐 그린 것으로 '나무가 많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林자보다 나무가 더 많은 것은 '빽빽하다'라는 뜻의 森(빽빽할 삼)자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
-
12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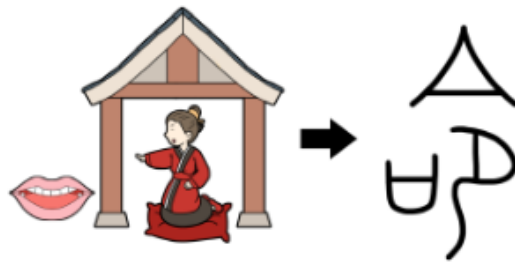
面

낯 면

面자는 사람의 '얼굴'이나 '평면'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面자는 사람의 머리둘레와 눈을 특징지어서 그린 것이다. 面자의 갑골문을 보면 길쭉한 타원형 안에 하나의 눈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面자가 단순히 '얼굴'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얼굴에서 비롯되는 '표정'이나 '겉모습'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갑골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命

목숨 명

命자는 '목숨'이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命자는 宀(삼합 집)자와 口(입 구)자, 卩(병부 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宀자는 지붕을 그린 것으로 여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을 그린 卩자가 더해진 命자는 대궐에 앉아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상관이 내리는 명령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 한다. 그래서 命자는 '명령'이라는 뜻 외에도 '목숨'이나 '생명'이라는 뜻이 파생되어 있다.

命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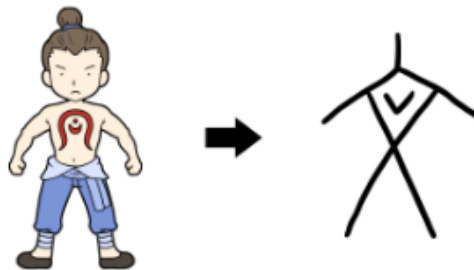
命

소전

命

해서

상형문자①



文

글월 문

文자는 '글'이나 '문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文자는 양팔을 크게 벌린 사람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文자의 갑골문을 보면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의 가슴에 어떠한 문양이 文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몸에 새긴 '문신'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文자의 본래 의미는 '몸에 새기다'였다. 그러나 文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서'나 '서적'과 같이 글을 새겨 넣은 것과 관련된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文자가 이렇게 글자나 서적과 관계된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糸(실 사)자를 더한 紋(무늬 문)자가 '무늬'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文자는 부수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용한자에서는 관련된 글자가 없다.

文

갑골문

文

금문

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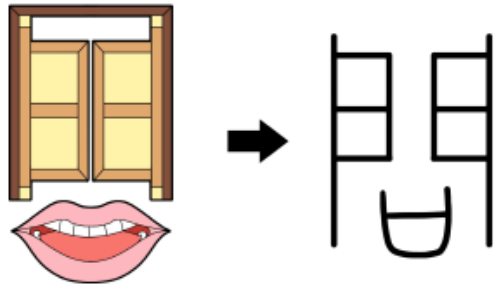
소전

文

해서

7
-
15

회의문자①



問

물을 문

問자는 '묻다'나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問자는 門(문 문)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門자는 양쪽으로 여닫는 문을 그린 것으로 '문'이나 '출입구'라는 뜻이 있다. 問자는 이렇게 문을 그린 門자에 口자를 더한 것으로 남의 집을 방문해 질문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외에도 외부소식은 문을 통해 들어온다 하여 '알리다', '소식'과 같은 뜻도 파생되어 있다.

問

갑골문

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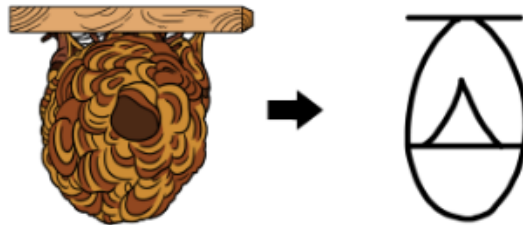
소전

問

해서

7
-
16

상형문자①



百

일백 백

百자는 '일백'이나 '백 번', '온갖'과 같은 수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百자는 白(흰 백)자와 一(한 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百자는 白자가 부수로 지정되어는 있기는 하지만 글자의 유래가 명확히 풀이된 것은 아니다. 百자의 갑골문을 보면 타원형 위로 획이 하나 그어져 있고 百 가운데로는 구멍이 있었다. 이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아직은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百자가 아주 오래전부터 '일백'이라는 수로 쓰인 것을 보면 이것은 지붕에 매달린 말벌집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말벌집 하나당 약 100여 마리의 말벌이 있으니 그럴듯한 가설이다.

百

갑골문

百

금문

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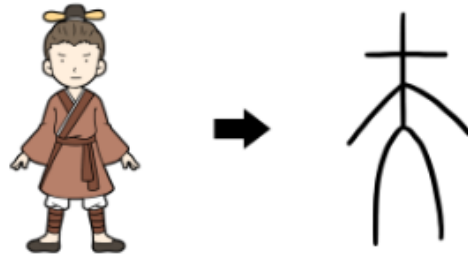
소전

百

해서

7
-
17

상형문자①



夫

지아비/
사내
부

夫자는 '지아비'나 '남편', '사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夫자는 大(큰 대)자와 一(한 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夫자를 보면 사람의 머리 부분에 획이 하나 亠 그어져 있었다. 이것은 남자들이 머리를 고정할 때 사용하던 비녀를 그린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남자들이 머리에 비녀를 꽂아 성인이 됐음을 알렸다. 그래서 夫자는 이미 성인식을 치른 남자라는 의미에서 '남편'이나 '사내', '군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夫

갑골문

夫

금문

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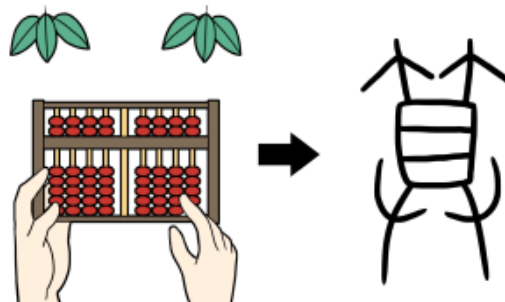
소전

夫

해서

7
-
18

회의문자①



算

셈(할)
산

算자는 '계산'이나 '셈', '수호'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算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目(눈 목)자, 升(받들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目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산가지(算木)와 같은 계산 도구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 算자는 대나무를 일정한 방법으로 늘어놓아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산가지로 계산하는 방식은 고대로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주판이 보급되면서 사라졌으나,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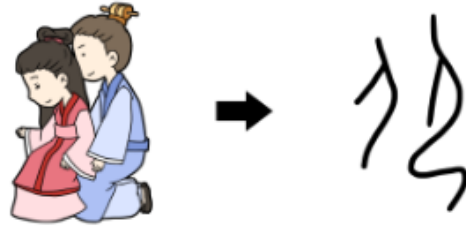
소전

算

해서

7
-
19

회의문자①



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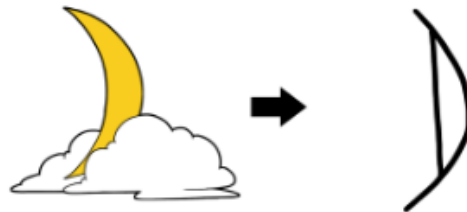
빛 색

色자는 '색채'나 '얼굴빛', '정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色자는 허리를 굽히고 있는 사람
그린 ㄱ 것과 바(꼬리 파)자가 결합한 것이다. 바자는 '꼬리'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본래
는 손을 내뻗고 있는 사람을 ㄹ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色자를 보면 두 사람이 나란히
붙어있는 ㄱ ㄹ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이성간에 성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다. 그러니 色자에 있는 '얼굴빛'이나 '정욕', '색채'라는 뜻도 사실은 성관계를 맺으며 붉게 달
아오른 얼굴빛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갑골문	소전	해서

7
-
20

상형문자①



夕

저녁 석

夕자는 '저녁'이나 '밤'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夕자는 달을 본떠 그린 것으로 갑골문에 나
온 夕자를 보면 초승달이 丩 그려져 있다. 그러다보니 '달'을 뜻하는 月(달 월)자와는 丩 매
우 비슷하지만 夕자는 가운데 점이 없는 모습으로 구별되었다. 夕자는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모습이라 하여 '저녁'을 뜻하게 된 것이라 풀이하기도 한다. 그래서 夕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저녁'이나 '밤'과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